

국가 핵심과제 추진 시설 속속 해남에 들어선다

올해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탄소중립 에듀센터 착공
국비 110억 확보... 기후스마트농업 선도·중심지 도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감도

해남군에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의 국가과제를 해결할 핵심 거점시설들이 본격 조성된다.

4일 해남군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50억원과 탄소중립에듀센터 건립 비용 60억원이 반영돼 올해 착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업무수행을 총괄하는 전문 전담 기관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총사업비 594억원여원을 투입해 삼산면 평화리 일원 3ha 부지에 조성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직접사업이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하반기 착공을 거쳐 2028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공모를 통해 해남군이 최

종 선정된 이후 2022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2023년 기본계획 수립, 2024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로 센터 설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가 탄소중립 교육을 총괄할 탄소중립 에듀센터도 공사비 60억원을 확보해 올해 착공한다.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들어서는 탄소중립 에듀센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총괄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은 한국환경보전원이 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389억원으로, 국비·지방비·민자가 함께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다.

국가적인 현안과제인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을 주도할 시설들이 올해 착공함에 따라 ‘농어촌수도 해남’을 군정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해남군의 위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는 기후변화 대응 국가전략 수립과 기후 관련 데이터 관리·연구 등 민간실증을 통한 탄소감축·적응관련 정책지원, 농업인·소비자 교육·홍보 등 대한민국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거점 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군은 센터를 중심으로 전남도 과수연구소를 통합 이전하고, 약 100ha 규모의 해남군 농업연구단지 조성 중이다. 향후 연구개발(R&D) 기능과 신품종과 기술개발, 농기계 등 농식품 분야 기업유치와 더불어 연구실증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 기후스마트농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2028년 준공 예정인 탄소중립 에듀센터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국민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미래세대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환경교육 거점으로 운영된다.

명현관 군수는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탄소중립에듀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국가적 과제 해결에 해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부처,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강진, 고3 학생 진로·진학 준비금 첫 시행
12~23일 신청자 접수...1인당 50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원

강진군은 지역 내 고3 학생들을 위한 진로·진학 준비금 지원사업을 첫 시행한다. 이 사업은 대학 진학·취업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강진군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강진고, 생명과학고, 병영상고, 성전고, 덕수학교 등 5개 학교가 해당된다. 주소지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진학 준비금은 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제공되며, 정책발행 상품권 지급을 통해 강진 내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신청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학교 재학·주소 확인을 거쳐 1월말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강진군은 신청 편의를 위해 각 고등학교를 방문,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진학지원금 신청 안내와 사전 현장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진원 군수는 “진학 준비금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고3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있는 마중물이다”며 “강진군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록 기자 sa432252@



강진군은 최근 강진고에서 고3 학생들을 위한 진로·진학 준비금 지원사업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립완도난대수목원의 레이크 가든 조감도

‘치유의 섬’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규모 확대

군, 국비 342억 추가 확보...총사업비 1815억 투입

완도군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와의 총 사업비 협의에서 342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 사업비 규모가 1815억원으로 확대되면서 보다 규모 있는 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4일 완도군에 따르면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기본계획·기본설계 용역을 수행하며 완도수목원과 타 지자체의 국공립, 민간 수목원들의 비교를 통해 방문객 편의, 주제원 간 시설 연결성,

색다른 볼거리 조성 등에 초점을 맞춰 기본 설계안을 완성했다.

기본 설계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은실의 노후화로 인한 절가·신축, 수목원 전 구간을 관람하는 모노레일 이용 편의 및 운행 안전성 확보, 모노레일을 타고 접근하는 목구조 전망대 등 사업 규모를 키웠다.

아울러 향후 운영 및 유지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방문해 난대 숲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수목원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사업 규모가 커지다 보니 기재부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산림청과 전남도, 완도군 등 관계 기관은 지속적으로 기재부에 사업의 당위성과 사업비 증액을 건의했다.

특히 수목원 조성과 더불어 산림치유와 해양치유가 공존하는 ‘치유의 섬’이라는 완도의 미래 비전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 결과 사업비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때보다 23% 증액된 342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

목포, 고향사랑기부자에

‘목포사랑패스’ 발급

목포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관광·문화 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목포사랑패스’를 발급한다.

‘목포사랑패스’는

목포시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자동으로 발급되며, 고향사랑e음 누리집(<https://ilovegohyang.go.kr>)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패스 소지자는 기부일로부터 1년간 목포시가 설치·운영하는 관광·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목포시민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 시설 방문 시 휴대전화로 목포사랑패스를 제시하면 된다.

적용시설은 목포군대역사관 1·2관,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목포시티투어, 목포문학관, 목포자연사박물관, 유달산복재문화체험장 등 6곳이다.

김동선 목포시 자치행정과장은 “목포사랑패스는 목포를 응원해 주신 기부자분들을 ‘고마운 손님’이 아닌 ‘목포의 가족’으로 예우하겠다는 약속이다”며 “앞으로도 기부자의 뜻이 지역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